



전북대김범석 교수, 수의학회 학술연구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김범석 교수(생체안전성연구소 소장)가 최근 열린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연구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 상은 지난 10년간 수의학 분야에서 가장 탁월한 연구업적을 이룬 연구자에게 수여된다. 이에 김 교수는 국내의 주요 학술지에 144편의 논문을 게재하며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생체안전성연구소 중점연구지원사업을 주관해 2020년부터 6회에 걸쳐 학술대회 세션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수의학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김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서 전북대학교에서 지난 17년간 진행한 다양한 연구 주제인 'Chameleon's Dilemma: Adapting to Science Society's Expectations'에 대해 발표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 개관

남원시가 지리산권 4개 읍면(운봉, 인월, 아영, 산내)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물론, 문화와 여가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건립한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를 11월 7일에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지리산권 SOC 복합센터는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인월면 황산로 1804(서부리 628-2번지)에 국·도비 60억 등 총사업비 158억원을 투입해 2022년 건립공사를 추진해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연면적 4,038.85㎡의 규모로 2023년 12월에 준공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 기계실 △지상 1층 실내 수영장, 인월면 행정복지센터 △지상 2층 헬스장, 다목적회의실, 주민자율공간 △지상 3층 청소년 자율공간 '청운(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도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동장 소선자, 민간 김희만)는 7일, 관내 선비촌(대표 윤용선) 식당에 착한가게 2호점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매월 매출의 일정액 (월 3만 원 이상)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윤용선 대표는 "착한가게 지정에 힘입어 더욱더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교통공원 숲속 아영장 개장

남원시는 교통산 국민관광지 내에 부지면적 28,069㎡에 총사업비 2억여원을 들여 다양한 캠퍼사이트와 어린이 놀이시설, 아이무대, 산책로 사위장 등 편의시설을 조성, 도심 속 산림휴양 공간으로 활용될 교통공원 숲속 아영장을 지난 1일 개장했다. 이곳 캠퍼지는 소나무 숲속에 조성되어 기존의 캠퍼지와는 그 분위기가 다른 곳으로, 개장 전부터 여러 블로거가 사진 리뷰를 통해 명당사이트를 정하기도 하는 등 많은 기대를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업인의 땀방울을 기리며'

전북자치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전주 N타워컨벤션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긍지와 공로를 기리는 '2024년 전북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생명산업의 중심지로써 전북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노창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장, 임승식 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영일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한 농업인 단체 회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농업인의 헌신에 감사하며 전북 농업의 미래 발전을 다짐했다. 기념식에서는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는 '제2회 농생명 산업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농생명 산업대상은 지속가능한 생산·가공·유통 활성화에 기여한 농업인에게 수여되며, 올해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부문 김진규 씨(광명수산 대표), 활력 있는 농어촌 부문 양봉관 씨(정읍 매당 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부문 임희문 씨(영)완주 봉상생강조합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속가능 농어업 부문의 김진규(광명수산 대표)씨는 김제시 귀어 1호로서 무한수 양식 기술로 '농자개'를



대량 생산하며 친환경 유통시장을 넓히고 지역 어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활력 있는 농어촌 부문의 양봉관(정읍 매당농촌체험휴양마을 위원장)씨는 도

농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방문객을 전년 대비 30% 이상 증대시키며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미래 먹거리 농생명 부문의 임희문(영)완주봉상생강조합 대표)씨는 전북 특산물인 봉동 생강을 편강, 생강가루 등으로 가공하여 전국 유통망을 확보하고, 100여 농가의의 계약재배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했다. 그 외에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과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기념식 후 열린 세미나에서는 농촌진흥청과 다양한 연구기관, 농업인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정책 방향과 도의 기후 변화 대응 사업 현장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올해 유난히 어려운 자연재해를 견디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준 농업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리다며, "전북이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만호 기자



진안군의회 이투라 부의장, 지방의정봉사상 영예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7일 제295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투라 부의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대신해 지방의정봉사상을 전수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의원에게 귀감이 되는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투라 부의장은 초선 의원이지만 군정 전반의 행정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쳐며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부의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군민과 소통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대 일자리플러스센터, 'JJ 직무박람회' 성료

전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6일 하림미션홀에서 JJ 직무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취업선배 현직자가 들려주는 '합격 노하우 전수'라는 주제로 △개입기획 △제품연구개발 △응용SW개발 △데이터분석 △스프린트마케팅 △패션디자인 △인사(HRM) △시뮬레이션 등 20여 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 현직자 멘토를 초청해 취업 준비 과정과 실제 직무 현장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도내 우수기업 채용설명관에서는 (주)하림 IC화학, 비나텍(주) (정정석씨), 원진알미늄 등 총 12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참여자들에게 양질의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현장 채용면접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날 박람회에는 800여 명의 청년이 참가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김동혁 학생(컴퓨터공학과 3년)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직무와 채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과 취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캠퍼스 안에서 도내 우수기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의 나눔 영웅' 윤판용 씨, 대통령 표창

"힘들 때 받은 지원이 큰 힘이 됐기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7일 '2024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익산시 윤판용 씨(65·삼성동)의 소감이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평소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이들을 찾아 포상하는 행사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KBS한국방송이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는 마음을 한 데 모아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엔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윤판용 씨는 과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지체·언어 부분에서 심한 장애를 갖게 됐다. 이후 윤 씨는 입소한 복지시설(동그라미)서 재활을 통해 몸을 조금씩 회복, 이웃을 돌보는 정가후원을 시작했다.

윤 씨는 2006년부터 익산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2곳에 매월 정기적으로 총 63만 원을 후원했다. 2020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도 매월 정기



윤판용씨

후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820만 원을 지원했다.

윤 씨의 나눔은 꾸준한 정기 후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온정의 손길은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학생들에게로 닿았다.

윤 씨는 앞서 지역내 장학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에 취약 계층 어린이가 소외감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써달라며 평생 모은 돈 2,000만 원을 쾌척했다.

이번 수상은 윤 씨가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20여 년간 기초수급비와 장애연금을 모아 꾸준한 기부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된 공로를 인정 받아 이뤄졌다.

윤판용 씨는 "부형과 장애로 힘든 시기에 받은 지원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나도 사회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힘든 이웃을 찾아 돕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기부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골든타임 4분의 힘'... 정읍시, 응급처치 교육 성황리 종료

정읍시는 시민의 응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한 '2024년 응급처치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정읍소방서와 협력해 이뤄졌다. 골든타임 4분의 중요성,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실질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들에게 체험 중심의 교육으로 제공되어 실효성을 높였으며, 시민과 민생현장 최일선 공무원을 포함해 총 402명이 참여했다.

시는 이번 응급처치 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시청 누리집의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홍훈 장수경찰서장,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장수경찰서(서장 김홍훈)는 최근 청소년 도박 근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된 청소년 도박 근절 프로젝트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지역민은 사람이 챌린지 참여를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영군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참여한 김홍훈 서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는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촬영하여 인증한 후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장수소방서장을 지목하였다.

김홍훈 서장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며,



"장수경찰은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무주군, 가족실습농장 수확 농산물 복지시설에 전달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 교육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지난 7일 자신이 직접 재배한 김장용 무와 배추를 기부해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들이 무주 장애인복지시설인 하은의 집과 무주군 자원봉사센터에 각각 기부한 배추는 150포기, 무는 40개로, 교육생들은 실습을 통해 재배한 작물이 지역 이웃들을 위해 귀하게 쓰이기를 바라는 뜻을 전했다.

한편 2017년 운영을 시작한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유상)은 귀농·귀촌 활성화와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기 위한 곳으로 거주 공간을 비롯한 개인 텃밭, 공동경작지 및 학습실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참여한 교육생들은 3월부터 토마토 재배시설 1동과 표고버섯 재배시설 1동, 감자, 옥수수, 고구마, 배추 등을 재배할 수 있는 공동경작지 1곳에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았다.

무주군청 인구조사와 이동훈 과장은 "직접 살면서 영농재배 기술과 선도 농가 현장 교육, 토지 관련 법률 등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내용의 실용 교육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며 "앞으로도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귀농·귀촌 교육,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돕는 선진 교육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